2021년 2월 2일(화) 중앙일보 제30호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자영업자·미숙련 노동자만 피해

김기찬 KIPF, 홍콩 시티대학 교수

도약의 기억 Memories of Korea's Economic Take off 김기찬 지음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일자리 창출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 정책들은 모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 정책들의 의도는 저소득층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이 정책들의 의도는 좋았지만 이 정책들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많았다. 이 정책들이 가져올 부작용 중 가장 큰 것은 일자리 감소였다. 이 정책들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이 정책들의 결과를 평가할 때가 되었다. 이 정책들의 결과는 어떠한가? 이 정책들의 결과는 의도와 정반대였다. 이 정책들의 결과는 저소득층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를 침체시키는 것이었다. 이 정책들의 결과는 저소득층 일자리를 감소시켜 저소득층 소득을